

#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본격화

### 무주군, 전북연구원 전문가들과 주요 사업현장 방문·논의

무주군이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관내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전북연구원의 산업·경제, 문화·관광, 지역개발·SOC 및 기타분야 전문가들이 동행하는 이번 방문은 내달 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3일에는 전북연구원 김수은 박사(산업·경제분야)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과 투자유치팀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반딧불시장과 읍내상권, 무주와 안성농공단지를 둘러 의견을 나눴다.

또 25일에는 전북연구원 김도영, 장충현 박사(문화·관광분야)와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지조성팀, 관광시설운영팀 관계자들이 태권브이랜드와 생태모험공원, 무주수이나무, 안성철연지구, 부남금강변관광자원 현장을 둘러봤다.

26일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재팀과 태권도팀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적상산성 성곽과 태권도원 민자지구 등지를, 6월 9일에는 기획실 기획팀, 산림복지과 산림휴양팀, 산림조성팀, 환경과 자원순환팀, 환경정책팀이 전북연구원 김재구, 천정운 박사(지역개발·SOC 및 기타분야)와 같이 무주대대를 비롯한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펠리공방, 폐기물 매립시설, 전북 자연환경연구소 등을 둘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무주군이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관내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제는 무주 외곽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을 무주읍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 1박 이상의 숙박 여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민이 돼야 할 때"라면서 "그리기 위해서는 핵심 먹거리나 볼거리, 1~2인 짧은 여행객을 타깃으로 한 숙소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돼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현재 전북연구원과 2023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 중으로 오는 11월까지 민선 8기 군정 지표 달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SOC, 농업·농촌, 문화·관광, 산업·경제,

산림·생태 분야의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 주요 국가·공모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와 도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중대형 프로젝트 개발, △발굴 사업의 국책사업화, △미 추진 사업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추진 동력을 함께 마련해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기획실 김경미 실장은 "다양한 자연경관과 풍요로운 자원을 가진 무주만의 장점을 활용해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예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의 소통과 협업을 지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윤곽

###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보고회 가져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윤곽이 잡혔다. 무주군은 기존의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치유와 휴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금강 유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산림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25일 군민의 집에서는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2022. 12.~2023. 10.)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용역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당사자 무주군의회를 비롯한 주민 등 1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향로산은 급경사가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산림형질 변경을 최소화하고 산림시설을 집단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방침"이라며 "치유와 휴양, 놀이와 체험, 하늘과 자연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순환경단지를 조성해 남녀노소 다(多)가치(같이) 누리는 숲,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복지단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지와 시킨 산림복지시설로, 무주향로산 산림복지단지(266ha/2020~2025/총 172억 원)는 다(多)가치 누리는 숲을 콘셉트로 하늘 숲, 치유 숲, 놀이 숲, 자연 숲 공간이 조성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선수단 11명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진안군 출전 선수단이 확정됐다.

진안군에서는 육상, 레슬링, 승마 총 3종목에 11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3종목 모두 최근 전국대회 등 각종 규모 있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을 내는 등 강호의 모습을 보여 왔기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발된 인원은 육상 종목에 김지현(80m), 전용규(말리뛰기), 홍석규(400m계주), 원도연(1,600m 계주), 양평석(3000m)이, 레슬링에서는 남성광(39kg 그레코로만형), 우이령(92kg 자유형), 주지훈(42kg 그레코로만형), 김경민(45kg 그레코로만형)이 참가하며 승마 마장마술과 장애물(80/90CLASS)에 김고경과 김재훈이 각각 출전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27개소 추가 지정

진안군은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27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군은 25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사업 전문가 등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행면 자산리 산 209번지 등 취약지역 27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근 민가의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과 대피소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소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진안군은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통해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소방사업을 추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치매안심센터, 전북도지사 표창 수상

장수군은 지난 24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가 주최한 2023년 광역-치매안심센터 직원 역량강화 발전 워크숍에서 2022년 전라북도 치매관리사업 정성평가 부문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치매관리사업 평가는 '2022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와 '2022년 전라북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으며, 평가항목은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 우수사례 부문에 따른 주요 세부지표 20여 개를 정성 및 정량 평가했다.

장수군치매안심센터는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했으며, 장수군 추정 치매환자 수 1,015



명 중 914명을 발굴해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을 90%로 향상시켰다. 또한 치매환자를 직간접으로 120건 이상 유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활발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내는 치매안심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과수 화상병 발생 차단 '만전'

장수군이 과수 화상병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선다.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돼 화상병 위기관리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높아짐에 따라 장수군은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더욱 강화된 예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경기도 안성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화상병은 그동안 '과수 구제역' '과수 코로나' 등으로 불리며 과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식물질병으로 알려졌다.

과수화상병은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

가 없는 데다 한번 감염되면 기주 식물을 2년 동안 재배할 수 없어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준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장은 "과수화상병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인 7월 말까지 예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사과 과수원에서 일이 겹쳐 변해 있거나 줄기와 나뭇가지가 말라 죽은 증상이 보이면 과수화상병을 의심하고 장수군농업기술센터(063-350-2851)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농작업 시 작업복과 도구 소독, 영농일지 기록 등을 준수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 시식 평가회

### 주요 특산품 홍삼 활용 5개 품목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진안군은 지난 24일 마이산본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 시식 평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마이리는 마이산의 마이와 마을을 의미하는 리(里)를 결합한 단어로 마이산본부 관광지 일대를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해 관광활성화로 도모하고자 명명됐다.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 시식 평가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수행 중인 마이리 특화음식 개발 용역의 진행 과업 중 하나다.

진안군의 주요 특산품인 홍삼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킬러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이산 북부 전반에 도입해 진안군이 내세우는 대표 콘텐츠인 '홍삼'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또한 홍삼을 활용한 이색메뉴, 디저트류, 간식류 등 먹을거리들이 방문객의 소비를 유도하는 주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시식 평가회는 마이산 음식문화거리 입구에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현재 용역으로 개발 중인 특산품을 활용한 5가지 품목(만주, 샌드, 아이스크림, 음료, 맥주)

이 제공됐다.

개발 상품은 마이만주, 마이샌드, 홍삼한방빵소, 홍삼맥주(브라운 에일, 페일 에일), 산양유아이스크림이고, 소비자들이 선호한 관광상품은 더위가 시작되는 시즌이어서 산양유아이스크림과 홍삼한방빵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용역은 6월까지 추진 예정이고,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이산 북부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품 매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차후 결과보고를 통해 최종 레시피를 확정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한재길 관광과장은 "금번 용역을 통해 마이산을 대표하는 건강한 간식거리를 개발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